
새시대 교수법 156호 한국공학교육기술학회 / 조벽

The hardest job kids face today is learning good manners without seeing any. Fred Astaire

“해찬 1세대” 학생 맞이하기 1

새 학기를 맞아하여 아직은 그래도 약간이나마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을 들어갔습니다. 노랑머리와 귀걸이한 남학생이 여기 저기 눈에 보입니다만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일전에는 요상한 차림을 한 학생을 보면 그들의 머리를 꼭 쥐어박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신차려라”고 큰소리로 충고해주고 싶었지만 이젠 으레 그러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 새 학기는 강의실 풍경이 또 달라져 있습니다. 특히 일학년 수업이면 달라진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학생들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치장 등이 작년과 비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태도가 영 맘에 들지 않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모습은 예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수업에 임하는 태도, 특히 교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불순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거슬립니다.

첫 십 분 동안에는 호기심 반 기대감 반으로 학생들이 교수님을 주시하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지켜워 온 몸을 비비꼬는 데 그 모습들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켜움을 일부러 과장하고 과시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례한 몸 동작을 하기 일쑤입니다. 교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의 안중에 아예 없어 보입니다.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피가 거꾸로 치솟아 혈압이 왕창 올라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드디어 “해찬 1세대” 학생들이 대학에 대거 들어 왔습니다. 초중고 교실 붐피가 대학 강의실 붐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럴 수가!"

"이런 아~들 데리고 무슨 놈의 수업을 하노?"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분노하고 한탄하고 단념해봤자 달라질 것이 하나 없습니다. 아~,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지요. 교수님의 열의가 식고, 마음이 굳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절망감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래가 한층 더 캄캄해 보일 것입니다.

교육은 희망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희망을 느끼게 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수님께서 안 그런 척하고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도 소용없습니다. 학생들은 절망하시는 교수님의 안색을 단박 알아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교수님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초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의실 들어오셔서 입 한번 뻥긋 하는 순간 학생들은 다 알아차린다고 하니 적어도 교수님에 관해서는 학생들은 관상쟁이 수준에 도달했다고 봐야하겠습니다.

학생들로부터 느끼게 된 교수님의 절망은 다시 학생들에게 전염됩니다. 순식간에 강의실은 절망의 도가니로 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손해는 학생들이 감당해야하고, 더 나가서는 우리 사회가 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손해보는 사람은 바로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의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교수님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해찬 세대" 학생들을 대하는 교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교수법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은 강의를 그럭저럭 열의로, 또는 꼴사나운 모습을 못 본척하면서 꾸려나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대응방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 호부터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 코너>>

한국능력개발교육원의 "새시대 교육자 생존전략" 수강생 전원이 "새시대 교수법" 전자주간

지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 조벽, 2002

이전 발간물은 웹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www.me.mtu.edu/~peckcho/korean.htm>

이 무료 간행물을 직접 받아 보시기 원하시면 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자동 가입됩니다.

가입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un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조 벽 교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eckcho@mtu.edu 전화: 미국(906) 487-2891 팩스: (906) 487-2822
